8 현장행정

KBS
전남소방

현장행정

희망이 넘치는 역동의 땅, 전남

2004년 6월, 민선 3기 제34대 도지사로 취임한 박준영 지사는 한 달여 만에 전남의 인구 200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전남의 운명을 바꿔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박 지사는 해안선과 섬, 갯벌 등 무궁무진한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을 활용해 도정 제1의 시책으로 기업유치에 매달렸다. 그 파급효과로 매년 3만 명 가량 줄어들던 인구가 2013년 말 기준 2,4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전남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끝임 없이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현안 사업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도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추진한 박준영 지사의 뚝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34대 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도민과의 대화'를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주제가 있는 토론회'로 모습을 바꿔 투자유치,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역 현안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고 산업이나 영농현장, 마을회관, 관광지 등 현장감 있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을 장소로 택했다. 예를 들면, 대한다원 내 삼나무 숲(보성)과 나비축제장(함평), 초의선사 탄생성지(무안), 정남진(장흥),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영광) 등으로 다양화했다.

대화 주제는 여수시의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비롯해 신안 '군 청사 이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성 '녹차 클러스터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 등으로 차별화해 진행했다. 대화는 지사가 시·군 업무

보고와 건의사항을 듣는 형식에서 탈피, 지역의 현안과 특성화 사업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삼았다.

도지사의 민생탐방 목적은 지역 현안을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국가계획이나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박준영 지사는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

도지사는 오지(奧地)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장 탐방을 실시한 이후에는 반드시 현장상황을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휴가를 겸한 민생탐방을 다녀와서는 담당 공무원을 불러 현장의 소리를 소상하게 들려주었다고 한다.

박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농수축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유통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특히,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기업화, 규모화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박 지사는 시·군을 순방할 때마다 "전남이 발전하면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며 "모든 도민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전남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동부권은 신소재산업을, 서부권은 관광레저 및 조선산업을, 광주 근교권은 미래생물·백신·나노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가자"고 제시했다.

특히,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 시·군별로 특산품을 산업화하고 특성화 산단을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색적인 지역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함평 파충류공원, 장성 중소형 댐 건설, 완도 수산산업 기업화, 화순 운주사(雲住寺)와 고인돌공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장흥 물축제 세계화 등을 지역발전 아이디어로 내 놓았다.

목포는 요트 등 해양산업의 중심지, 담양 은퇴자 마을 등 도시민 유치, 강진 참살이 검정콩 특화단지 조성, 장흥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강휴양단지 조성 등 시·군마다 지역의 특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6,000㎞가 넘는 해안선과 2,000개의 섬, 드넓은 갯벌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진 신안군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만큼, 이를 활용한 산업을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박준영 지사는 시·군 순방을 통해 전남이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 희망이 넘치는 역동의 땅으로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에게 도정 현안사업과 시·군 연계사업을 설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도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치매환자 전문 공중보건의 배치, 슬레이트지붕철거 보조금 지원, 종패(씨조개)연구센터 건립 등 700건에 달하는 건의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남도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사안 별로 중앙 건의 및 시책 반영, 재원 확보 등 중·단기계획을 수립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장이나 군수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시·군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도 평가위원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했다.

박준영 지사가 발로 뛴 3,650일의 성과는 낭중지추(囊中之錐)처럼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 돼버린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추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은 전남의 대표 브랜드가 됐고, 농어촌 지역을 치유와 재충전, 훈훈한 공동체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한 '행복마을' 사업은 현재 135개 마을이 조성됐다.

우수한 신재생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 전남을 국내 제1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로 발돋움 시켰으며, 개도 이래 처음으로 4대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냈다. 또한 전남만이 가진 장점으로 일궈논 성과들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전남은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자 희망이 넘치는 역동의 땅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전남도민들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8 현장 행정

1. 민간공가 원가 무료자문단 운영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를 뿌리내리자

전남도에서는 2008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여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엄격한 원가심사를 통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계약심사 제도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 선택, 산출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도내에 소재해 있는 복지기관, 영농법인 등 민간보조 사업자들이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보면, 원가심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때문에 보조 사업자들은 별도의 심사비가 투입되는 원가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보조금 과다 신청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들도 공사비 과다 반영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공사에 대해 별도의 심사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전에 원가심사를 실시한다면, 공사비는 물론 국·도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시에 도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민간사업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2009년 10월 민간보조 사업자와 도민들에게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원가심사 무료 제공을 골자로 한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구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였고, 2009년 11월 "공공·민간공사 원가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월부터 도 회계과 계약심사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서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서비스' 운영 활성화

무료자문단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시·군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 지역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갔다. 또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자문단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원가자문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접수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방문 및 서류 접수 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공사 원가심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무료자문은 '설계검토 → 현장 확인 → 결과통보'의 3단계로 처리하였다. 특히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 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조달가·물가정보지·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여부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 특허나 신기술공법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등 실질적인 사업 전반을 검토하였다.

예컨대, 2010년 3월 사업비는 18억 3천만 원의 요양원 건립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각종 공사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재료비 절감 및 불필요한 중복공종 삭제 등 2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포스틸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심사하였다. 중복 계상돼 있는 골재운반비 삭감과 대형장비를 이용한 운반차량 조정 등 약 9억여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도록 유도하였다.

2011년 1월 광동 2산단 내 단지조성 공사에서는 기준가 보다 높게 반영된 자재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반입토와 사토 운반거리를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 공사비 323억 원 중 7.3%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2년 6월 목포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는 단지 내 토공운반 장비를 소형에서 대형장비로 교체하였다. 각종 소모자재에 대해서는 도내 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하였고, 적정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267억 원 중 91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장성군에 소재해 있는 세온엔텍의 목재 펠릿 제조 시설 공사 원가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 8건을 심사, 총 160억 원 중 8.2%에 해당하는 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민간(도민)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여 년 동안 원가심사 무료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토목, 건축, 기계설비, 물품 제조·구매 등 총 55건의 자문을 요청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공사비 19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장관 기관 표창 등 모범 사례로 우뚝

2012년 6월 감사원에서는 전남도 기관감사 시에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서비스 운영' 제도에 대해 "도지사는 해당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137개 기관에서 제출된 385건의 행정우수사례 중에서 상위 24건에 포함돼 안전행정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3년 정부합동평가 "계약심사제도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전남도 계약심사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발주하는 사업까지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한 결과 현재는 타 지역에까지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남 고흥군 등에서 전남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자본 보조사업까지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일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남도는 도민이 무료 원가심사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공사의 취약점 분석 및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곧 사업비 절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도출하였고, 도민의 호응도 및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조기정착과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민간공사 무료 원가심사 서비스를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총 4,431건에 72,896억 원을 심사하여 5,619억 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참 고 각종 언론 보도자료

광남일보 2012년 2월 6일(월) [광주전남] 10면

민간공사 무료 원가심사 효과 '톡톡'

道, 32건 61억 절감… 올해부터 융자사업도

전남도는 2010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을 운영해 도민이 직접 발주하는 토목·건축공사의 계약 심사를 해줘 지난해까지 6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민선 5기 들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도민이 발주하는 사업까지 무료로 자문해 줌으로써 지난해까지 32건, 1467억원의 민간공사 무료자문을 실시해 61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해 민간업체에서 요청한 광동 2산단 내 단지 조성공사는 설계에 높게 반영된 자재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 현장 여건에 맞게 반입토와 사토 운반거리를 적용해 당초 예상공사비 327억원 가운데 25억원(7.6%)을 절감했다.

포스틸 용단공장 부지 조성공사도 중복 계상돼 있는 운반비를 삭감하는 등 공사비 78억원의 11%인 9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거뒀다.

민간 요청 원예시설물 건축공사도 46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실질적인 공사비가 산정되도록 지원해 왔다. 홍성장 기자 hong@

전남매일 2012년 2월 6일(월) [종합] 2면

전남도 민간공사 무료 원가심사 효과

2년간 32건 61억 절감…융자사업도 추진

전남도는 2010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을 운영, 지난해까지 6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민선 5기 들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도민이 발주하는 사업까지 무료로 자문해 줌으로써 지난해까지 모두 32건, 1,467억원의 민간공사에 대해 무료자문을 실시해 61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해 민간업체에서 요청한 광동 2산단 내 단지 조성공사는 설계에 높게 반영된 자재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반입토와 사토 운반거리를 적용해 당초 예상공사비 327억원 가운데 25억원(7.6%)을 절감했다.

포스틸 용단공장 부지 조성공사에서도 중복 계상돼 있는 운반비를 삭감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노임단가를 적용, 심사대상 공사비 78억원의 11%인 9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거뒀다.

배유례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을 올해는 지자체에서 민간에 지원해주는 보조,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가 원가심사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원가심사를 추진, 사업예산 적정성과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光州日報

2012년 2월 6일(월) [종합] 02면

전남도 원가심사 통해 2년 동안 61억원 절감

전남도가 2010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을 운영, 도민이 직접 발주하는 토목·건축공사의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6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민선 5기 들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도민이 발주하는 사업까지 무료로 자문해 줌으로써 지난해까지 모두 32건, 1467억원의 민간공사에 대해 무료자문을 실시해 61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일보

2012년 2월 6일(월) [종합] 03면

道, 원가심사로 61억 절감

민간공사 무료, 32건 처리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을 운영, 도민이 직접 발주하는 토목 · 건축공사의 계약 심사를 해줘 지난해까지 6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 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총 32건 1천467억원의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61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업체에서 요청한 광동 2산단 내 단지 조성공사는 설계에 높게 반영된 자재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반입토 및 사토 운반거리를 적용, 공사비 327억원을 심사해 25억원(7.6%)을 절감했다.

포스틸 용단공장 부지 조성공사는 중복 계상돼 있는 운반비를 삭감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노임단가를 적용, 공사비 78억원을 심사해 9억원(11%)을 아꼈다.

배유례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예산 절감과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운영제도를 많은 도민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전남일보 2012년 6월 19일(화) [종합] 2면

감사원 "도청 이런 공무원 표창해 달라"

전남도 감사서 계약심사계 모범 선정
원가심사 무료지원단 운영… 33억 절감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단을 운영해 2년 동안 33억 원을 절감한 전남도 계약심사계 직원들이 18일 회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지사는 해당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의 '저승사자' 감사원이 '지역 공무원들을 표창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단 운영'을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도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모두 25건에 이르는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 중 24건은 모두 업무에 대한 지적 사항이었다. 모범사례로 통보된 것은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 이 유일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남도 세무회계과 계약심사계다. 지난 2009년 8월 지금은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천영(46·6급)씨가 제안해 도입됐다. 당시 이씨는 계약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씨는 "당시 국비와 도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하면서도 적절한 원가로 계산된 것인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민간보조사업도 세금인 만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모두 동참해 줬다"고 했다.

▮감사원 포상의뢰 이유

① 주민편익 증대
② 공사비 대폭 절감
③ 행정신뢰도 높임

실제로 보조금을 받은 민간사업자들이 별도의 심사비가 들어가는 원가심사를 기피하면서 관련 공사비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못했다. 이는 고스란히 보조금 과다신청 등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 요소가 컸다.

계약심사계는 2010년 1월 공무원 중 토목과 기계·건축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단'을 출범시켰다.

◇ 전남도 계약심사팀 무료자문단 성과

도입시기	무료 원가심사 사업	당초 사업비	심사이후 사업비	절감금액
2010년 1월	12개	489억900만원	455억2900만원	33억7900만원

무료지원단은 2010년 3월 요양원 건립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당시 사업비는 18억3000만원 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공사에 대해 원가심사를 진행했던 공무원들은 2000여만 원의 예산이 더 책정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공사비 심의를 의뢰받아 무려 9억여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전남도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단이 그동안 원가심사를 해준 사업은 12건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무려 33억7900만원이나 된다.

감사원은 "원가심사 무료지원단은 공사비를 절감시켜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했고, 주민들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남도 고덕일(56) 계약심사계장은 "도민들을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시·군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조나 융자사업을 할 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무등일보 2012년 10월 26일(금) [종합] 2면

전남도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행안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전남도의 민간공사 원가심사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2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 공사 원가의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절감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민이면 누구나 전화 한 통만으로 공사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5건 3천116억원의 심사를 의뢰받아 179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그 결과 이 제도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우수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행정기관에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총 137개 기관에서 385건의 수범사례가 제출됐다.

방옥길 전남도 회계과장은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승한 기자

남도일보 2012년 10월 26일(금) [사회] 9면

전남도 민간공사 원가심사제 '전국 우수'

행정제도 경진서 기관표창…행정기관에 전파

전남도는 2012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온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운영' 제도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한 사례의 성과 발굴과 공유를 통해 전국 행정기관에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137개 기관 385건에 대한 수범사례가 제출돼 언론인과 대학 교수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남도가 제출한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운영' 등 전국 2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전국 행정기관에 전파한다.

전남도의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자문단 운영' 제도는 민간에서 직접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 공사 원가의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절감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전화 한 통만으로 공사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5건 3천116억원의 심사를 의뢰받아 179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했으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방옥길 전남도 회계과장은 "민간공사 원가심사제도는 국가가 제시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범위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 · 발전시킨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직 ·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2. 훈훈한 지역만들기

의향 전남, 공동체 의식 운동 시작

전라남도는 예로부터 정이 많고 의로운 의향의 고장이었다. 더불어 살아가고, 이타주의를 통해 덕(德)을 쌓아가는 곳. 이러한 우리 고장에 훈훈한 정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대식 '의향' 만들기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훈훈한 지역 만들기 범도민 운동' 이 그것. 그 시작은 '훈훈한 공동체 의식' 에 대해 도민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의식변화는 물론 공동체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 되었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아 의로운 땅 전남의 전통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이 몸에 밴 도민상 정립을 위한 운동 전개"

지난 2006년 7월 '범도민 운동' 으로 출발, 목적부여와 실질적인 운동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총 85건의 과제가 공모되었고 공모된 과제를 대상으로 도청 사무관 이상 간부 186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12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12대 실천과제

① 고은 말은 이웃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② 남을 배려하면 나도 존중 받습니다.
③ 친절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④ 법질서는 선진국민의 상징입니다.
⑤ 어르신 공경은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⑥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⑦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⑧ 기업사랑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⑨ 공정한 상거래는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⑩ 남긴 음식은 쓰레기가 됩니다.
⑪ 양보하는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⑫ 칭찬은 활력을 만들어 냅니다.

범도민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전남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남지부, 전남지방경찰청, 시 · 군청 등 도내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시켰다. 참여기관 · 단체에서는 '친절교육' 실시 등 자체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타 기관 · 단체의 행사에도 참여하

는 등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2008년 중순까지 12개 실천과제에 대한 범도민 운동을 추진한 결과, 실천과제의 다양화 등으로 캠페인의 통일성이 저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당해 11월 12개의 실천과제를 '범도민 친절운동' 이라는 단일과제로 단일화 시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참여 유관기관·단체의 통일성 있는 범도민 운동으로 모습을 갖추며, 양질의 다양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범도민 친절운동' 도민과 공감대 형성

무엇보다 도민대상 교육을 활발히 펼쳤다. 먼저 홍보동영상 2종을 제작하여 범도민 전남 만들기 친절교육에 적극 활용하였다. 도민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69회 8,500여명(69회), 운수종사자 34,128명(158회), F1대회 대비 관계종사자 친절 실천 결의대회 250여 명, 음식종사자 76,667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도내 이·통장 및 가족 친절 교육1회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포스터, 전단지, 어깨띠, 배너 입간판, 스티커 등 20종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여수엑스포, F1대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친절 캠페인 8회를 전개하였다.

그 외에도 TV, 라디오 등 6개의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 5~15회의 '친절' 캠페인을 펼쳤고,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매년 28개 과정의 '친절교육 및 과목'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전남지회 바르게살기 전남협의회, 광주·전남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에 도비보조금 150백만 원을 지원하여 '친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 운영

'훈훈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도내 30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를 2008년 8월 30일 구성·운영하고 있다.

매년 1회, 실무회의 2회 이상 공론의 장을 통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를 위한 혜안을 교환한다. 또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2010년 9월 27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법무부 간 '법질서 확립운동 업무협약'을 지난 2011년 5월 27일 체결한 바 있다.

홍보활동도 적극적이다. '법질서 지키기' 홍보물 3종(4만부)을 제작·배포하였고, 광주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216,592명의 농어촌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식개혁 운동의 '훈훈한 지역만들기'

'훈훈한 지역 만들기' 사업에는 전남도 내·외 지역민을 대상으로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 의롭게 행동하는 자를 적극 발굴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2008년부터 마련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289명에게 접시형태의 원형도자기로 제작된 전라남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연평균 48.2명을 발굴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부상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없다.

친절 생활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민의 품격을 높이는 의식개혁 운동으로서의 '훈훈한 지역 만들기'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유치 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친절' 의식은 성공 개최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친절 캠페인의 생활화는 대외 홍보 및 도민 친절 의식 향상의 두 가지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친절'을 안내하는 홍보동영상의 대대적인 상영 ▲시·군청, 새마을전남지부·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전남지방경찰청·교통연수원 광주전남지부·농협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단체의 자체 의식개혁 운동사업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의 내실 운영 ▲숨은 의인 및 선행자 적극 발굴 표창 및 격려 ▲공무원교육원 '친절교육 과정 및 과목' 개설 운영 등을 중점시책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할 것이다.

아울러, 관주도형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도민 참여형' 의식개혁 운동이 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3. 음식문화 선진화

글로벌 식(食)문화로 거듭나자

과거 우리의 음식문화는 질(質)보다 양(量)을 중시하여 무조건 푸짐해야 좋은 상차림으로 여겨왔다. 이는 오랜 가난 속에서 굶주리며,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었기 때문이다. 국이나 찌개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 놓고 다 같이 집어 먹거나 공동으로 떠먹는 식문화가 우리 삶속에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패러다임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네 음식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공동으로 섭취하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말이다. '공동체' 적 삶의 단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 게다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음식문화를 인지하여 민선4기 도지사 취임과 함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추진하였다. 글로벌시대 선진국, 경제대국 수준에 맞게 위생적이고 당당한 식(食)문화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남도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운동 전개

낭비적이고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음식문화개선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남도 좋은식단으로 음식문화를 바꿔 나갑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범도민 운동을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도 좋은 식단제란?

여러 가지 반찬을 한 상에 차려놓고 공동으로 떠먹는 식문화를 개인별 찬기에 담아 먹거나, 집게와 국자를 이용해 먹을 만큼 덜어다 먹자는 운동임

남도 좋은식단 상차림 모형

하지만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수 천 년 내려온 식습관을 어떻게 단번에 고칠 수 있느냐?", "음식을 차리는데 일손이 더 들고 고객들이 싫어한다" 등이 그 대표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민 의식전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 홍보와 교육, 음식점 영업주들의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주요 추진사례

- 음식점 종사자 교육 65천명, 범도민 실천 다짐대회 개최 6회
- 여성 · 소비자단체 등 자율참여 업무협약 체결 19개 단체
- 개인찬기(복합찬기), 덜어먹기 용품(집게, 국자) 디자인 개발 보급
- 지역 방송(TV, 라디오), 대중교통 광고 1,168회
- 음식점 · 공무원 심포지엄 개최(지역신문 : 광주매일신문사 공동)
- 음식문화개선 시범지역 운영 등

음식문화개선 범도민 실천 다짐대회

여성 · 소비자단체 자율참여 업무 협약식

또한, 음식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형찬기, 덜어먹기 집게 등 음식문화 개선 용품을 641개소(516백만원)에 지원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202개소(404백만원), 환경개선 자금 융자 55개소(1,592백만원) 등 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을 병행하였다.

음식문화개선 홍보 스티커

소형찬기 · 복합찬기 사용 홍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각급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포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 조기 교육도 병행해 나갔다.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이렇게 7년여 동안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음식문화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한 선진 음식문화"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도내 성인남녀 500명 설문조사 결과('13.4.25.~'13.6.8.)

- 도에서 추진하는 「남도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 464명(92.2%)
- 덜어먹기 또는 개인별 찬기 사용 경험이 있다. → 420명(83.5%)

※ 조사기관 : 와이즈리서치(서울 역삼동)

또한 「남도 좋은식단」 실시 이후 음식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09년 432톤, '10년 406톤, '11년 401톤, '12년 399톤, '13년 374톤으로 매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도 음식문화개선 운동 시작 첫 해인 '07년 11건, '08년 6건, '09년 1건, '10년 1건, '11년 12건, '12년 5건, '13년 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 시·도보다 먼저 시작한 「남도 좋은식단제」 음식문화 개선운동 정착으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선보임으로써 국제대회 성공 개최와 전남도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한 몫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전남도의 노력과 추진 성과가 알려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기관 표창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음식문화개선 성공 모델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중앙부처 수상 현황

- 보건복지부, 음식문화개선 3년 연속 최우수기관 : '09년 '11년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최우수기관 : '10년
- 안전행정부, 정부합동평가 지역 특화 분야 우수기관 : '12년
- 한국방문위원회, 식당환대서비스 우수업소 전국 최다 선정 : '13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패 수상

앞으로도 '대한민국 음식문화 1번지', '맛의 고장 전라남도' 명성에 걸맞게 깨끗하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남도 음식을 맛보기 위해 다시 찾는 전라남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인력관리 전담부서 설치

왜, 인력관리과인가

조직의 경쟁력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창의적인 인재가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큰 공을 들이는 이유이다. 즉, 인재가 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관리 업무 전반의 전문화 흐름에 맞춰, 전남도에서도 2007. 7. 1. 자 조직개편으로 '인력관리과'를 설치하고, 조직, 인사, 고시, 훈련,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등 각 분야별 담당을 설치하였다.

'아껴둔 땅' 전남의 잠재력을 담은 조직

	2004	2006	2010	2014
기구	9국 39과 14직속기관 8사업소	10국 43과 14직속기관 8사업소	11국 44과 14직속기관 8사업소	10국 44과 16직속기관 8사업소
정원 (일반/소방)	3,361명 (1,829/1,532)	3,361명 (1,788/1,563)	3,929명 (1,870/2,059)	3,989 (1,923/2,066)

전남도는 기구와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방직 3교대, 사회복지 인력 등 도민의 안전 및 복지와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였다.

시대의 변화와 미래 핵심 트렌드를 미리 읽고 전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먼저, 전국 유일의 '행복마을과'를 신설('06)하고, 전국 최초로 은퇴도시 전담부서(은퇴도시담당관)를 설치('13)하였으며, 기존 투자유치부서를 투자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06), 공공디자인과 설치('08), 해양수산과학원 3급 격상('13) 등 전남도의 비교우위 자산과 발전 잠재력을 담은 다양한 조직을 설치하였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직원별·부서별 '사무량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직진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숨은 진주를 찾아라"

최근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된 직업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25:1의 높은 경쟁률이 이를 방증하면서 지방공무원시험은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등용문이 되어 왔다.

신규 임용후보자 오리엔테이션('10. 8. 10)

전남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하되, 소방 및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여 지난 10년간 총 5,545명(연평균 554명)을 채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경력을 갖춘 숨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사회적 배려 ·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직 문화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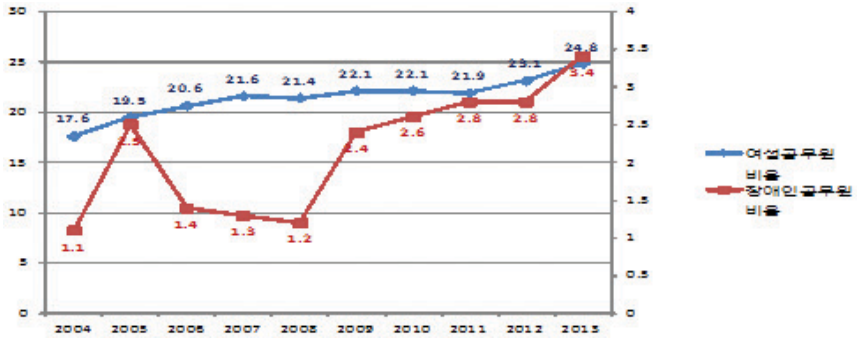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에 따라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구분	2004년	2013년
여성공무원 비율	17.6%	24.8%
5급이상 관리직 여성	18명	34명

또한 장애인 복지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장애인을 채용하였다. 도내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도 '04년 1.1%에서 '13년

3.4%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0% 보다 0.4% 초과 고용한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전형을 실시하여 젊고 참신한 인재를 채용하였다.



사회취약계층(여성, 장애인) 채용현황

	총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저소득층	24명	2	2	3	7	10
고교졸업자	6명	–	–	–	1	5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공직 내외 전문가들에게 널리 문호를 개방하였고, 2008년부터는 '특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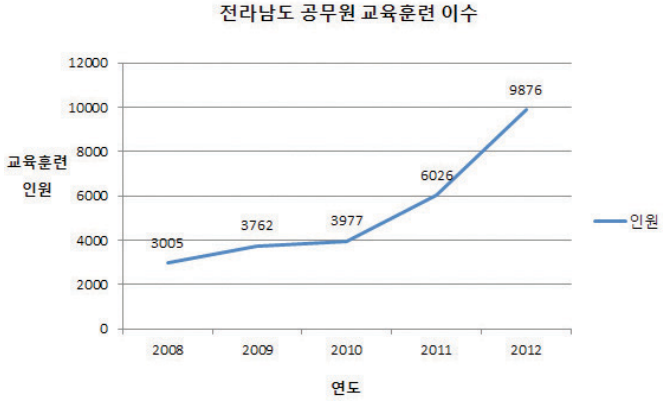
2014년에는 베이비붐 세대('55년 ~ '63년생)의 정년퇴직이 예상되면서 개도(開道) 이래 최대 규모인 1,160여 명 신규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향후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인재들에게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잘 키운 공무원, 열 박사 안 부럽다

인재를 채용한 후 그 인재를 사장시키지 않고 조직의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그 잠재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공무원 교육훈련 목표를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 글로벌 인재양성' 으로 정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훈련 이수 공무원이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도정에 접목하고 직원들



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선진지 비교연수 팀훈련(총 216팀 2,479명 : 제1기('05 ~ '08) 106팀 1,308명, 제2기('11 ~ '13) 110팀 1,171명)을 실시하였다. 훈련과정에서 체득한 해외 선진사례는 공공디자인, 투자유치, 국제행사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청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 공직자 양성을 위해 전 직급을 대상으로 청렴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현장체험형 청렴교육 ('13. 6월)

간부공무원이 장성 청렴사적지를 참배함으로써 전라남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 소통과 신뢰의 인사문화 정착

전남도는 인사 청탁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와 실적 중심 인사를 강조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전국 최초로 평가자에게 직무성과노트를 배부하고 '잘한 일', '미흡한 일'을 수시로 기록하도록 하는 직무성과노트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직무성과노트의 활성화는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크게 높였다는 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연구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통해 연구의욕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계속 몸담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다. 결국 연구성과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인재등용 및 관리는 도정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전남도는 2013년 정부인사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光州日報 2013년 4월 17일(수) [광주전남] 10면

전남도 '직무성과 평가노트' 첫 도입

투명성·객관성 중시…개인실적 인사 적극 반영

전남도가 공무원들의 개인별 성과를 기록, 이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 직무성과 평가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6일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실적 중심의 인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평가노트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국장과 실·과장이 평가자가 돼 4급 이하 소속 직원들의 직무성과를 '잘한 일' '미흡한 일' 등으로 그 때 그 때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무성적 평가나 승진·전보인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사전에 직원 면담을 통해 개인별 평가기록을 알려줘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 등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 예산 확보 노력, 업무 창의성과 전문성 달성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과 비중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록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점관 행정지원국장은 "인사청탁없는 깨끗한 공직문화와 실적중심 인사를 강조하는 도지사의 인사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평가노트를 통해 평소에 일 잘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매일신문 2013년 6월 3일(월) [인물] 18면

전남 연구성과 공무원 특별승급

이인·박용철·양호철·서대철 연구사 등 4명 영예

농업과 어업·보건분야 등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전남도 연구사들이 특별승급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농업과 보건, 어업 분야에서 도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 및 자문을 얻은 후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1일자로 특별승급을 단행했다.

농업분야에선 벼 조기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햅쌀시장 선점과 조기재배용 벼 신품종 '전남 1호'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기술원 이인 농업연구사와 박용철 농촌지도사가 선정됐다.

보건분야에선 '소금품질평가 방법'을 특허출원하고 버려지는

이인 박용철 양호철 서대철

간수의 재활용 등을 통해 천일염 식품산업화에 기여한 보건환경연구원 양호철 보건연구사가 영광을 안았다.

어업분야에선 국내 최초로 해삼 종묘 생산을 2개월 앞당기고 해삼 종묘를 기존 1g에서 2-5g 크기로 방류함으로써 해삼 생존율을 60%로 향상시킨 해양수산과학원 서대철 해양수산연구사가 특별 승급했다.

이점관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현장에서 도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소득 창출 등에 기여한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특별승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수 기자 kspen@kjdaily.com

신명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여행('12. 5. 8.)

전남도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9월 정식 발족하였다.

전라남도 공무원 노사는 넉넉한 남도의 인심처럼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가정 · 직장 ·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가정과 일터가 공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맛 나는 훈훈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구 분	프로그램
가족사랑	효도여행(2회), 역사문화탐방(2회), 휴양소운영(3회) 등
직장화합	동료사랑 소통캠프(9기), 호프데이(2회), 카트대회(1회)
지역상생	봉급끝전모으기, 향토기업과 상생협약, F1대회 지원 등

또한,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높여왔다.

2006년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10년부터 격년제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 구성원의 직장 화합 및 복지증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전남도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6년 노사출범 이후 단 한건의 불법관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2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 '2013년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3 노사문화대상 수상('13. 12. 12.)

청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 공직자

얼마 전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을 "소속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즉, 최고의 조직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일하고 싶은 매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전남도가 2007년 7월, 인재관리 전담조직으로 '인력관리과'를 발족하고, 다양한 인재관리 선진 시책을 도입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의 모범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도는 공무원 채용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전라남도의 모든 공무원이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에게 봉사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청렴하고 창의적인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도지사 민생탐방 및 현안사업장 방문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전라남도지사는 2004년 6월, 민선 3기 제34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전남 인구가 200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전남의 운명을 바꿔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을 지 고민하였다. 특히, 해안선과 섬, 갯벌 등 무궁무진한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을 활용해 도정 제1의 시책으로 기업유치에 매달렸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추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은 전남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농어촌 지역을 단순 거주공간이 아닌 치유와 재충전, 훈훈한 공동체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35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또한, 우수한 신재생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 국내 제1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로 발돋움하였다. 개도 이래 처음으로 4대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러 가능성 검증과 함께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매년 3만명 가량 줄던 인구 감소폭이 2013년말 기준 2,400여명으로 둔화되어 희망을 가지고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현안 사업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도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있는 토론문화 형성

제34대 도지사 취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도민과의 대화'를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주제가 있는 토론회'로 진행하였다. 투자유치, 친환경 농업육성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고 장소도 산업이나 영농현장, 마을회관, 관광지 등 현장감 있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으로 선택했다.

대화주제는 여수시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신안군 '군청사 이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성군 '녹차 클러스터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등으로 지역별 특색을 차별화하여 추진하였다.

전체적인 회의 방식도 달리했다. 군청 회의실 등 기존 획일적인 장소를 떠나 대한다원내 삼나무 숲(보성)과 나비축제장(함평), 초의선사 탄생성지(무안), 정남진(장흥),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영광) 등으로 다양화하여 현장체험을 병행하였다. 과거 순방처럼 지사가 시·군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듣는 형식에서 탈피, 지역의 현안과 특성화 사업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다.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전남 발전의 근원

민생탐방의 목적은 주민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현안을 더 소상히 파악하였고,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익년도 국가계획이나 도정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이를 연구하고 그 자원을 잘 활용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농수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경쟁력이 있음을 역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군 현경면 석북행복마을 주민과 함께('09. 2. 25. 무안군)

유기농 친환경 농업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친환경 생명산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주문하고,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기업화, 규모화를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전남의 인구가 매년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도민 2백만명 이하로 추락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였다. 지역 특산자원을 산업화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안 사업장 방문에 주력하였다.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 현장 공감대 형성

도민과의 대화는 지역 현안을 살피고 도민 화합을 위한 것으로 각 시·군이 요청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 순방 때마다 "전남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며 "모든 도민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전남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동부권은 신소재산업, 서부권은 관광레저 및 조선산업, 광주근교권은 미래생물, 백신, 나노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가자"고 제시했다. 특히,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 시·군별로 특산품을 산업화하고 특성화산단을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시·군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이색적인 지역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함평은 파충류공원, 장성은 중소형 댐 건설, 완도 수산산업 기업화, 화순 운주사와 고인돌공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장흥 물축제 세계화 등을 지역발전 아이디어로 발굴했다. 목포는 요트 등 해양산업의 중심지, 담양은 은퇴자 마을 등 도시민 유치, 강진은 참살이 검정콩 특화단지 조성, 장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강휴양단지 조성 등 시·군마다 지역의 특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6000㎞가 넘는 해안선과 2000개의 섬, 드넓은 갯벌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를 활용한 산업을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시·군 순방을 통해 전남이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 희망이 넘치는 역동의 땅으로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도민들에게 도정 현안사업과 시·군 연계사업을 설명하며 지역 발전

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10년 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치매환자 전문 공중보건의 배치 ▲슬레이트지붕철거 보조금 지원 ▲종패연구센터 건립 등 700건에 달하는 건의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사안별로 중앙 건의 및 시책 반영, 재원 확보 등 중·단기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시·군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도 평가위원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그동안의 성과인 친환경농업과 행복마을, 투자유치 노력 끝에 인구 감소폭이 현재 한 해 4천 명 수준으로 크게 둔화됐으며, 이는 지역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남만이 가진 장점을 찾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의 비교우위 사업을 모방하고 있을 정도로 전남은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자 희망이 넘치는 역동의 땅으로 운명이 바뀌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생산을 넘어 주식회사 설립 등 가공·유통 체계화를 통한 더 큰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2013. 2.19,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맞이해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장성 공공도서관 방문(2013. 3. 26.)

완도 글로리아수산(건전복, 건해삼) 방문 (2012. 2. 7.)

6. 도민명예기자 위촉 · 운영

다양한 도정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도민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명예기자는 지역사회의 두터운 신망을 받으면서 도정에 대한 관심과 홍보는 물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역민이다. '00년 주부명예기자 60명 위촉 · 운영을 시작으로 2년마다 공모를 통해 재위촉하고 있으며, '04년 100명으로 확대, '14년 현재 제7기에 이르고 있다.

'11년에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들의 도정참여와 도정 홍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우명예기자 20명을 별도로 추가 위촉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와 도정 주요시책을 전국에 전파하는데 많은 영향력과 홍보효과를 거양하였다.

도민명예기자는 월2회 발간되는 도정소식지 '녹색의 땅 전남새뜸'을 통해

지역 및 향우 소식,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기관단체 동정, 생활미담, 도내 숨은 관광자원 등을 취재·홍보한다. 현재까지 약 1만1천여 건을 투고하여 5천여 건의 기사가 '녹색의 땅 전남새뜸' 소식지에 게재 되었고, 도정 이슈의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도정소식지는 마을회관, 경로당,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전·현직 의원(국회, 광역, 기초), 기업인, 타 시·도 및 해외 향우회 등에 6만부가 발간·배포된다. 도정 홍보 파급효과가 큰 매체로 도민명예기자 투고 기사 등을 보고 실제로 독자들이 전남의 역사와 문화, 축제 등을 관람하기 위해 전남을 찾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도정소식지 기사 투고 활동 등으로 다져진 글솜씨를 바탕으로 '08년에는 자작 시, 수필, 생활글 등을 모아 '전라도 아줌마들의 수다'라는 주부명예기자 문집을 발간하였다. 전라도 사람들의 후덕한 인심과 삶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출해 냄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10년 제2집, '12년 제3집에 이어, '14에는 향우명예기자까지 포함한 도민명예기자 제4집을 확대 출간한다.

문집은 글작성, 원고모집, 편집, 교정, 표지 등 일련의 제작 과정을 도민명예기자단이 자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력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크며, 이는 명예기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또 하나의 임무로 자리하였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도민명예기자들의 도정홍보와 참여, 쌍방향 소통 등 기자 본연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문화탐방을 겸한 상·하반기 워크숍,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기사 작성방법, 도정 홍보기법 등에 관한 교육과 명예기자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 주민 의견 소통 등 도정을 공유·공감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도정 홍보 방안을 협의한다. 이를 통해 명예기자단과의 탄탄한 도정 네트워크를 형성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간다.

또 홍보와 함께 F1 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에는 빠짐없이 솔선 참여하여 정확한 행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전남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게다가 매 농번기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자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아울러 '12년과 '13년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과 노인들을 발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사회 공헌 문화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바자회에 명예기자단 전원이 마음을 담아 기증한 생활용품, 재능활동 수제품, 직접 기른 농특산품 등 매년 100여 품목 700여 점을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판매한다. 이는 수요자의 관심과 구매를 촉진시켜 지역의 따뜻한 미담사례로 전파 되었으며, 사랑·나눔·실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운영 14년여 동안 도정소식지 투고활동, 주민 현장의견 수렴활동, 도정 홍보, 농어촌 봉사,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통해 도정 운영에 필수적인 단체로 성장한

도민명예기자단은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사 투고 활동과 더불어 취재 등을 통해 얻은 도정발전 민간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에 구애됨 없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명예기자 인터넷 카페에 '도민참여방'을 개설 운영 중이다. 카페에 게시된 아이디어는 실명으로 관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14년 워크숍 행사 시에는 별도의 발표회 시간을 갖는다.

도정소식지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양질의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 매월 1건 이상씩 의무 투고는 물론 정책평가, 특별기고, 칼럼 등으로 기사 투고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 주요업무보고서, 뉴스레터 등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지역곳곳에 도민명예기자들에 의한 입소문 도정 마케팅으로 도민들의 도정 관심을 배가시킨다. 그리고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14년 전라남도 중점 홍보 캠페인인 「훈훈한 전남만들기」 도민 의식개혁 캠페인에 도민명예기자단이 솔선하여 생활 속 나눔과 배려,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선행하고, 훈훈한 지역 현장 소식을 제보토록 하여 성공적인 도민의식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정소식지 '훈훈한 전남人' 란에 게재된 화장실 청소를 통한 노동의 대가를 장학금으로 기탁한 사연, 구례 운조루家 경상도 며느리의 나눔 실천 사례, 무인 양심가게 등은 도민명예기자단에서 제공한 훈훈한 전남 실천사례이며, 이는 도정뉴스, 도대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도민명예기자들의 사회 활동 영역을 보면 작가, 문화관광 해설사, 비즈공예, 그림, 압화, 서각 등 다양한 직업과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방과후 교사, 아동센터 등에 재능을 기부해 대부분 훈훈한 전남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도민명예기자들의 이 같은 활동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인향(人香)을 파급한다는 호평이다.

'00년 주부명예기자로 시작해 '11년 향우명예기자 영입으로 지역 22개 시·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의 기자단은 도정 홍보 및 취재 활동 등 기자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봉사와 사랑 나눔, 재능기부 등을 통해 도정 홍보메신저로서의 높은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7. 민원메신저 위촉 · 운영

민원모니터에서 민원메신저로 진화

전남도에서는 2003년 5월 지역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강화와 함께 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모니터제도'를 시행하였다. 민원메신저의 전신인 민원모니터제도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도민 중에서 모니터 요원 43명을 위촉, 고충민원을 제보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여론을 파악·제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활동 프로그램 부재 및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활동 부진자가 많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보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특히, 시·군별 모니터수가 1~3명 정도로 열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모니터 상호 간 유대관계 부재로 소속감 및 사명감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레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먼저, 메신저 활성화를 위해 위촉 인원을 세 번에 걸쳐 현재의 150명으로 확대하고 상호 소통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명칭도 '민원모니터'에서 '민원메신저'로 변경하였다.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활동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원메신저, 참여 도정을 꿈꾼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 행정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인식전환을 위해 확대된 인원으로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후부터는 활동단위가 같은 지역 내 메신저 간 원활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생성되었고, 차츰 민원메신저 제도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행정기관에서 독려해도 힘들었던 메신저 활성화가 메신저 스스로 상호 간 메신저 활동을 격려하고 독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메신저의 목표였던 참여행정도 서로가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메신저 조직은 제7기 민원메신저를 출범시켰고 전체 대표 및 사무국장을 두고 지역별로 4개 권역(동부권, 서부권, 중남부권, 광주근교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대표 및 총무를 선출하였으며, 하위조직으로 각 시 · 군 대표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활동은 권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권역별 간담회로서 연4회 개최하고 있다. 전체 간담회는 상 · 하반기 2회씩 주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메신저들의 활동과 관련한 의견 청취 및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간담회 4회 개최 중 2회는 자원봉사활동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모든 진행과 준비는 권역 임원에게 일임함으로써 참여행정을 위한 자체적인 역량강화 여건을 제공하였고, 대표는 가급적 연임을 금지하여 많은 메신저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메신저 전체 프로그램으로는 상 · 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강사 강의를 통해 메신저의 의견쓰기 작성 역량을 키웠으며, 도정 주요현안 사업장 방문을 추진, 도정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민원메신저는 온라인 활동으로 민원메신저 홈페이지에 연평균 250여 건의 의견 제보를 하고 있다. 개인적인 고충민원이 아닌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정책제안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참여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앞으로 전남도는 민원메신저의 활동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메신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도정현안 사업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원메신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7기 민원메신저 위촉식(2013. 1. 30.)

제7기 민원메신저 위촉식(2013. 1. 30.)

2013년도 상반기 연찬회(2013. 5. 2. ~ 5. 3.)

2013년도 하반기 연찬회(2013. 11. 1. ~ 11. 2.)

도정현안사업장(순천만정원박람회) 탐방
(2013. 9. 30.)

노인요양원 자원봉사활동(2013. 11. 22.)

8. 도민 무료 법률상담

법률고민, 전남도가 도와 드립니다

도민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 · 지리적 여건 등 법의 보호에서 소외 받는 도민들의 삶의 고충 해결을 주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법률관련 자문을 위해 광주,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권역을 2008년 9월 목포권(목포, 신안, 영암, 함평), 순천권(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나주권(나주, 화순, 담양, 곡성, 장성, 영광), 해남권(해남, 장흥, 강진, 완도, 진도) 4개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권역별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 편의와 상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법률사각지대의 잠재 수요자 발굴 확대를 위해 2011년도부터 2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확대하였다. 2012년 6월부터는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거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시간 사이버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실생활에서 겪는 재산 소유권, 사인 간 채권 · 채무 문제는 물론,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등 다양한 분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목 표	▣ 법치행정 사각지대 최소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 침	▣ 상담사항 사전 접수를 통해 체계적인 답변자료 준비 ▣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선정 ▣ 정보화시대 흐름에 부응한 사이버 상담 병행

중점 추진 내용	▣ 사회적 약자계층(노인, 이주여성 등) 대상 법률상담 실시
	▣ 서민금융 피해구제 및 노동관련(체불임금 등)
	▣ 도민의 일상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상담 (소유권 이전, 채권·채무, 상속권 분쟁, 토지보상 등)
	▣ 금융, 노동문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1:1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상담운영

도민 무료법률상담은 법치행정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계층(노인, 이주여성), 서민금융 피해구제, 노동분야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권리보호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금융·노동문제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 1:1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다양한 법률상담 추진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은 시행 초기에 4개 권역(목포권, 나주권, 순천권, 해남권)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9~2010년도는 3개 권역(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연도별 추진실적(순회 법률상담)

연번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횟수	31	4	3	3	6	7	8
상담건수	620	89	93	105	130	90	113

한편, 2011년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없거나 희망하는 10개 시·군(담양·화순,

영광 · 장성, 영암 · 신안, 함평, 곡성 · 구례, 무안)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2년은 2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7개(신안, 담양, 무안, 장성, 강진, 함평, 진도) 시 · 군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추진실적(사이버 상담)

연번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담건수	85	-	-	-	-	37	48

사이버법률상담은 2012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까지 총 8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방식은 상담자가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aw.jeonnam.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이 홈페이지에 답변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이버 상담 신청 및 진행상황은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관은 대한변호사협회(광주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위촉된 5명의 법률상담관으로 구성 · 운영해오고 있으며, 일반 순회상담은 물론 사이버상담까지 실시하고 있다.

주요 상담사례 유형

지난 5년 동안의 도민 무료법률상담 주요 상담사례를 4가지 유형(소유권 분쟁, 채권 · 채무 분쟁, 이혼 및 국적취득문제, 체불임금문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유권 분쟁

• 전남 나주시 김○○ 할아버지가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던 문중

소유 땅을 다른 사람이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전등기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소유권 회복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함

② 채권 · 채무 분쟁

• 전남 담양군에 사는 최○○씨는 수년 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고의로 행방을 감추는 채권자의 태도를 토로하고, 채권회수 방안 등을 자문함

③ 이혼 및 국적취득문제

• 전남 목포에 사는 응○○○○(베트남)씨는 결혼비자로 2010년도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곧바로 남편과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가 수소문 끝에 시어머니를 찾았음. 그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만, 소식이 없어 이혼 및 위자료, 한국국적 취득문제 등을 상담

④ 체불임금문제

• 구례군에 거주하고 있는 정○○씨는 공장에서 일해 오다 체불임금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발급받았는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상담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신뢰도 제고 강화

지난 2008년 이후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구조 및 도민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각종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의 운영확대 및 분야별 전문 상담변호사(세무, 노무분야 등) 위촉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9.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남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7월 27일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다음해 8월 3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 건설·소방, 농수산 분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1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 선정은 도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9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 추천으로 41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는 위원 중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임키로 하였으며, 제1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으로 하였다.

5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소관 도청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하여 분과위원회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다.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해 2012년 8월 3일 ~ 8월 17일(15일간) 도민을 상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도 도 재정투자 수요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예산편성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사업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민 226명(남 170, 여 56)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남도의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예산 확보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자를 늘려야 할 부분으로는 일자리 창출분야,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산업 육성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생산적 복지분야에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다.

②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 보장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2012년 8월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기획 · 사회분과위 5건, 행정 · 환경분과위 1건, 경제 · 관광분과위 8건, 농수산분과위 9건, 건설 · 소방분과위 10건 등의 투자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총회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의사항 예산반영현황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 예산반영 현황은 총 33건 3,674억원의 국도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획 · 사회위원회의 반영현황은 나주 빛가람체육센터 건립 5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70억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28억원 등이며, 행정 · 환경위원회

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 105억원, 영어교육 지원 22억원 등이다.

경제·관광분과위는 대불산학융합단지 조성 10억원, 섬관광 자원화 사업 33억원,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 44억원 등이며, 농수산 분과위는 농기계 임대사업 58억원, 임도시설 130억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10억원 등이며, 건설·소방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억원, 소방장비 보강 26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2013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참여 위원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었고, 열띤 토론과정을 통해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해 2013년 6월 20일 ~ 7월 19일(30일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232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 투자우선순위 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 순으로 파악되었다.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축제과다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축제예산 재검토 ▲복지예산분야 지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필요 ▲농수산분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전환 및 이자지원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 신중 검토 ▲대중교통 재정 지원금 지급관련 검증 철저 등의 개선안이 제출되었다.

아울러, 각종 분야별로 시책사업 28건 4,933억원의 사업이 건의되기도 하였다.

③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8월에 개최하였다. 8월 5일부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별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8월 26일 순천에서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건의사항을 결정하여 도에 제출하였다. 이날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장 견학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사회위원회 1건, 행정·환경위원회 3건, 경제·관광위원회 3건, 건설·소방위 7건, 농수산위원회 5건 등의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④ 예산반영현황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건의사항 검토결과 장기과제로 추진할 사업,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현 시점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한 사업 등이 많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편성 재원이 부족하여 도로확포장 20억원, 연륙연도교 건설 720억원, 철도 관련 2억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 17억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에 비해 건의사업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저조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전남도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0. 남도친구들, 남도사랑봉사단 운영

전문가봉사단 「남도친구들」이 떴다 !

교수, 전문분야 종사자 등 은퇴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남도친구들'은 자원봉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은퇴한 전문가들의 사회 참여 욕구 충족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외식이나 여가비용 등을 줄여봤지만 더해가는 어려움에 결국은 아이들 학원마저 끊게 되었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청소년 교실 운영, 조손가정 돕기' 등 서민대책을 강구했으나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이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또한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9%보다 2배 가까운 18.3%이고, 기초수급자 비율은 전국평균 3.1%보다 훨씬 높은 5.5%이다.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지만 재정자립도는 20.7%로 전국 시도 평균인 52.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이들과 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팀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자문을 거치면서 '남도 친구들'이란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남도 친구들은 퇴직한 교수, 교사, 기업인 등 은퇴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무료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도 친구들은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에서 출발 하였다.

남도친구들, 시행착오를 겪다

남도친구들이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지만 처음부터 성공적 정착을 바라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남도친구들의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는 활동회원 자체의 문제점이었다. 활동회원 중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회원도 있었고, 등록만 하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었다. 둘째는 홍보의 문제였다. 홍보 부족으로 남도친구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남도친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남도친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대적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2011년을 기점으로 활동 횟수와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여 기존회원을

재정비하고, 신규 회원 모집 시에는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선발하였다. 또한 매년 신규 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펼친 결과, 현재 남도친구들의 전체 회원이 2011년도에 97명, 2012년도 111명, 2013년도 12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남도친구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홍보 활동도 강화하였다. 또한 남도친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복과 모자를 지원하였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였다.

거친 풍랑 후에는 잔잔한 항해가 있으리...

회원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 · 과학 분야 71명, 관광 · 문화 분야 32명, 건강 · 복지 분야 20명 등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직별로는 교수와 교사가 53명, 공무원 23명, 회사원 16명, 예술인 6명, 금융인 5명, 기타 경찰 · 군인, 언론인 및 간호사 등으로 전문 영역분야도 점차 넓혀지고 있다.

또한 남도친구들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와 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원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둘째는 노인과 아동의 상호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을 들 수 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노인과 아동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다.

셋째는 지역사회 관광·문화 해설 및 안내를 통해 관광 전남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문화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도친구들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

여기에서 남도친구들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함평군에 위치한 '꿈이룸지역아동센터' 입니다.
'남도친구들' 을 통해 저희 센터에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선생님 두 분이
올 초 오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센터를 위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삶의 경험과 지혜로서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도친구들 ' 을 통해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오셔서 어느새 센터의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 중략..
그동안 센터의 한 식구처럼 지낸 터라 아쉽고, 고마운 마음에 비해
센터에서 해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고마움을 글로서 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자원봉사자 두 분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자원봉사 분야가 있으신가요?"
"네,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도친구들 봉사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도친구들이 없었다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한결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어떤 분의 말씀이다.

이처럼 은퇴 후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존감의 높임으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은퇴도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전남을 알리는 좋은모델이 바로 남도친구들의 삶이 아닌가 싶다.

자원봉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혹은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새로운 일터나 소일거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농어촌이 대부분인 우리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가 서로에게 없기 때문이다.

남도친구들은 이러한 미스매치(Miss-match)를 해소하여 은퇴자들이 자신이 일해 왔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게 도와준다. 이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은퇴 후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존재감과 방향감을 상실한 채 그저 그랬던 일상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남도친구들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전문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이다. 봉사단 운영의 자율성도 높여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더욱 다양한 전문가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문가그룹 도민봉사단
남도친구들
남도친구들사무실

은퇴자 재능나눔봉사단
2013「남도친구들」업무연찬회
장소 : 광양제철소 및 순천지역
주관 :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후원 : 전라남도

2013「남도친구들」업무연찬회

재난 재해시 전남도를 지키는 「남도사랑봉사단」!

갈수록 늘어나는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 재해에 대비하고자 전남 22개 시·군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을 모집하여 '남도사랑봉사단'을 조직하였고, 각종 재난재해 및 국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전남의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남도사랑봉사단, 세상을 바꾼다 !

사단법인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노성만)는 2010년 12월 9일 '나눔 2010전라남도자원봉사대축제'를 갖고 1천여 명 규모의 '남도사랑봉사단'을 발족하였다.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도의회의장, 김준목 한국자원봉사센터 중앙회장, 방송인 정보석 씨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센터 임원, 자원봉사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나눔2010전라남도자원봉사자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남도사랑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각종 재난 재해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지원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남도사랑봉사단, 2011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싸우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약 550여 명의 남도사랑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공무원들과 함께 도민들의 아픔과 축산농가에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나눔2010전라남도자원봉사자대축제' 「남도사랑자원봉사단」 발대식(2010.12.9.)

남도일보 2011년 2월 7일(월) [인물] 10면

민간 자원봉사자 구제역 방역 '구슬땀'

전남도, 550여명 민간차원 동참…녹색축산 방어 앞장

전남지역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와 사단법인 전남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노성만)는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으로 공무원 등 방역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415만원을 긴급 편성해 담양, 보성, 화순, 장흥, 해남, 강진, 함평 등에서 민간 자원봉사자 55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시·군 구제역 담당부서와 협조해 지난 1월 중순부터 구제역 이동초소 근무 및 위로지원, 차량 서행조치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강진군 방역초소에서 방역을 지원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친환경 녹색축산을 표방하고 있는 청정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방재대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피로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소식에 막상 참여해보니 쉽지가 않다"며 "하루빨리 축산업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남도사랑봉사단, 2011 F1경기장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2011 F1코리아그랑프리 성공개최를 염원하기 위해 남도사랑봉사단 460여명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친절과 미소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친절·미소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각국과 국내 각지에서 F1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청결한 상태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F1 주경기장 메인그랜드스탠드 및 K구역 스탠드 17,600좌석을 비롯한 주변 환경청소를 통해 F1대회의 성공개최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남도사랑봉사단, 2012 태풍(볼라벤과 덴빈)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전남도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와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전남 10개 시·군(목포, 순천, 곡성, 구례,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남도사랑봉사단 2,080명은 태풍피해지역 복구 봉사활동 응급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남도사랑봉사단, 2013 저소득층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

2013년도에는 동절기 재난재해에 대비해 독거노인을 비롯한 전남지역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4개 시·군에서 남도사랑봉사단 100여 명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연탄배달, 전기, 가스배관 안전 점검, 보일러수리, 창문수리, 수도 동파 예방활동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었다.

남도사랑봉사단, 앞으로의 여정 ~

남도사랑봉사단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꾸준한 교육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도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익히며, 전남 도내의 재난재해 및 국제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훈훈한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1. 숙박업소 환경개선

부정적 의미의 러브모텔 확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모텔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본래 모텔의 사전적 정의는 '자동차 여행자가 숙박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여관'이다. 미국에서 유래된 단어로, 자동차를 뜻하는 모터(moter)와 호텔(hotel)에서 파생된 언어다.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안된 모텔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 숙박공간이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경, 유럽과 일본에서는 1960년경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면서 대도시의 교외, 대도시 간의 중간지점, 대도시와 관광지 등 곳곳에 모텔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모텔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당시 관련법인 공중위생법에 모텔이라는 업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의 다른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에 모텔이라는 상호는 관련법에 저촉됐지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억제할 수가 없었다.

한편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으로 구분된 숙박업소의 업종구분과 시설기준 등이 폐지됨으로써 관광지, 국도 주변과 심지어 농어촌 지역까지 모텔이 등장하여 러브모텔이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각종 국제행사 대비, 모텔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제1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 동안 일부 외신기자들이 러브모텔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모텔들의 객실은 외국의 웬만한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문제는 모텔을 체류·숙박보다는 대실 위주로 영업함으로써 러브모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차장, 식당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강조하여 폐쇄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되는 영업방식도 지적되고 있다.

2010년부터 7년간 개최되는 F1코리아그랑프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그리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부정적 이미지의 숙박업소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이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전남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것은 분명했지만, 자칫 국제적 이미지 손상과 녹색전남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호텔이 부족하여 전남 지역을 찾은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모텔에서 묵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브모텔' 이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했다.

행복호텔로 새로운 출발

먼저, 러브모텔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숙박업소의 명칭을 모텔에서 호텔로 바꾸는 것이 절실했다. 또, 숙박업소의 현관과 로비를 개방하고, 주차장의 가림시설을 철거하여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개방적으로 개선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숙박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갖추거나 인근 식당과 연계한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행복호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복호텔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숙박업소 간판 정비와 조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개소당 5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2011년 본예산에 20개소의 사업비 50백만원(도비)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행복호텔사업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로 인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호텔사업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의지에 공감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업대상은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텔 중 영업자가 호텔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호텔로 전환하면 숙박료가 비싸 이용객이 감소하고, 간판과 조리시설 설치 등 시설 개·보수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자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또한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업소가 있어 1차 시행년도인 2011년에는 당초 목표보다 1개소가 적은 19개소를 행복호텔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10월 10일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베네치아호텔이 제1호 행복호텔 지정표지판 현판식을 가졌다.

행복호텔 지정표지판은 2011년 4월 공공디자인과에 디자인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7월 중간보고를 거쳐 8월 지정표지판을 최종 확정하였다.

지정표지판의 녹색 나뭇잎은 천혜의 자연 보고인 아름다운 전라남도를 황색은 기름진 황금들판과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로고의 흰색은 맑고 순수함을 담았다. 그리고 녹색의 땅 전남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자연친화적 소재인 나무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2차년도인 2012년 행복호텔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예산에 편성된 20개소보다 많은 30여 개소가 접수 하였다.

이는 1차년도 사업시행결과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행복호텔에 대하여 영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1차 추경예산에 10개소에 대한 예산 25백만원(도비)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0개소를 행복호텔로 전환하였다.

3차년도인 2013년에도 모텔 20개소를 행복호텔로 전환하여 2013년 11월 22일 목포시 상동에 소재한 유토피아가족관광호텔에서 제50호 행복호텔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모텔 20개소를 행복호텔로 전환하여 아늑하고 정감 있는 남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쾌적하고 청결한 객실 유지를 우선 시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숙박업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행복호텔

행복호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2013년 3월, 2주간에 걸쳐 행복호텔 영업자 49명에 대하여 무기명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업소 소재지, 규모, 행복호텔 전환시기 등 기본현황과 행복호텔 전환에 대한 영업자 만족도, 행복호텔 전환 후 이용객 만족도, 행복호텔 전환 후 이용객 증감 등에 관한 것으로 설문조사 대상 49명 중 약 60%인 2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행복호텔 전환에 대하여 영업자의 6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영업자는 10.3%에 불과해 대부분의 행복호텔 영업자는 만족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호텔 전환 후 손님의 58.6%가 만족해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손님은 없었다고 나타나 행복호텔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복호텔 전환 후 손님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영업자는 41%,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영업자는 24.1%,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영업자는 34.5%로 나타나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행복호텔 전환 후 손님이 증가하였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행복호텔 영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가 갈수록 행복호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호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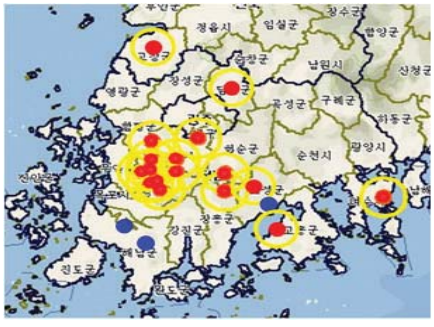
12. 2011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대응

발생개요

2011년 11월 5일 영암군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전남도의 고병원성 AI는 3월 2일 고흥군 오리농장을 마지막으로 60여일 동안 총 8개 시·군 23개농장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나주와 영암지역은 오리사육의 전국 최대 집산지로 고병원성 AI의 잇따른 발생으로 광범위한 확산과 차단방역에 실패할 경우, 인체감염 등이 우려되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1월 20일부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4월 6일에는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

본 질병 발생 초기부터 공무원은 물론 군인, 자원봉사자 등이 방역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158농가 3,236천수의 닭, 오리를 신속하게 살처분 매몰하는 등 동 질병을 조기 종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관·군의 헌신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11년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감염축 살처분

'11년도 고병원성 AI의 다발 원인은 오리농장이 밀집한 나주와 영암지역에서 오염된 농장을 출입한 사료, 왕겨 등 차량과 사람 등의 인적 또는 물적 이동에 따라 농장 간 확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리 등 가금류 축사의 경우 비닐하우스형 축사가 많아 보온, 환기, 습도 조절이 미흡하고 과밀 사육 등에 따른 열악한 사육환경이 농장 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으로도 지적되었다.

이에 고병원성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는 물론, 열악한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등 가축

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 상황

전남도에서는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8개 시 · 군에서 23건이 발생하여 158농가 3,236천수를 살처분하였다. 시 · 군별로는 나주시 73농가 1,655천수, 영암군 66농가 1,308천수, 화순군 2농가 68천수, 장흥군 3농가 148천수, 여수시 11농가 250수, 보성군 1농가 14천수, 담양군 1농가 12천수, 고흥군 1농가 31천수로 나주시와 영암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 111개소가 조성되었으며 긴급 매몰에 의하여 일부 매몰지에서는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축산, 환경, 토목부서가 합동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단을 운영하여 2차 오염 발생을 예방하였다. 또한 모든 매몰지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침출수 배출, 악취 발생 예방, 매몰지 유실 방지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AI 발생에 따른 타 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오염 · 위험지역 등 발생지역에 대하여 78개소(나주 36, 영암 16, 여수 2, 보성 2, 화순 10, 장흥 6, 고흥 2, 담양 4)의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시 · 도 간 경계와 시 · 군 간 경계의 주요 도로에 270개소의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 운영하였으며 이동통제초소에는 소독기, 고압분무기 등 총 739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이동통제초소는 공무원과 군 · 경 및 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력을 운영하였으며, 차량통제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초소마다 군 · 경의 협조를 받아 통제를 실시토록 하였고, 방역대책을 추진하는데 연 11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AI가 발생한 시 · 군에서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에서는 동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예비비 634백만원을 확보하여 해당 시 · 군에 지원함으로써 소독약품, 인건비 등 일선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등 긴급 방역비 1,205백만원을 확보하여 발생

AI 방역초소 방문

오리 사육장 소독 지원

시·군에 지원함으로써 긴급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었다. 시·군에서도 자체예산 7,500백만원을 확보 긴급 방역활동을 추진하였다.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현 시세의 100%를 적용하여 166농가를 대상으로 29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 지급은 가축의 살처분으로 소득원이 소실되어 생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가평가하여 평가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시·군의 최종평가에 따라 지급하였다.

또한 간접적인 피해 보상으로 살처분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으로 139농가에 17억원을 지원하였고, 미입식 등에 의한 소득 보전을 위한 소득안정자금으로 215농가에 15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가축입식자금으로 12농가에 20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4개 업체에 1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총리와 함께 초소 방문

방역관련 시도지사 영상회의

반성 및 교훈

전남도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2003년 12월 처음 발생한 이후 2008년과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 전국 오리생산의 최대 주산지라 할 수 있는 나주와 영암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닭·오리 약 320여 만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이동제한, 방역초소 운영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I의 발생원인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새로부터 국내에 유입된 후에 사람(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차량, 야생조류 등에 의해 농장이 감염된다. 그 후 최초 감염농장에서 사료차량, 왕겨공급차량, 동물약품 판매상, 계란 수집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가금농가 종사자의 농가 주변 철새 도래지(소하천 포함) 출입 자제, 사육시설 소독 강화 등 축산농가 책임 차단방역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등 가축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질병에 저항력을 갖도록 사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행정기관, 축산단체, 계열회사의 구성원도 축산농가와 혼연일체로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 매진해야 한다. 그러면 녹색의 땅 전남의 닭·오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13. 영광 법성포 너울성파도 피해 예방대책 마련

기상상황 및 피해원인

2007년 3월 31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에 전남 영광지역 육지와 해상에는 7m 정도 조위가 상승한 상태에서 원인미상의 파도가 해안가로 몰려와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먼바다에서 서해안지역으로 진행한 장주기파 파도가 간조시간에 발생한 강한 저기압과 겹쳐 서해안의 지형적 영향, 특히 원인불명의 해일 등이 복합 작용하여 해수범람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군산대학교 최병주 교수 등 연구자 3명은 대기압 상승 속도와 파도의 속도가 일치한 공명현상으로 대기압 상승이 빠르게 통과하고 높은 파도는 발생한 뒤 수심이 낮은 서해안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파도의 폭이 적고 높이만 높아져 영광 등에 너울성 파도가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 너울(SWELL)은 먼 지역에서 바람에 의해 발생된 물결이 해안으로 닥아오는파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휴일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발생됨.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상황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영광원전 온·배수 취수구를 점검하던 원전 직원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건물 24동의 침수와 선박 12척 전파 및 3척의 반파 피해를 입었다. 또한 수산 증·양식 시설 12개소와 어구·어망 2,891통의 피해로 1,712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과거에도 1996년 6월 사리 때 강풍으로 인한 해수범람(상가 200동 침수), 1997년 8월 폭풍에 의해 해수범람(상가 80동 침수), 1999년 8월 태풍 "올가"로 인한 해수범람(상가 40동 침수), 2000년 8월 태풍 "플라피룬"으로 인한 해수범람(상가 100동 침수) 피해를 입은바 있다.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피해발생 직후 전남도와 영광군은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소방당국과 군부대, 경찰의 도움으로 법성면 법성리와 홍농면 칠곡리 일대 침수지역에

340여 명의 복구인력과 청소차, 방역차, 소방차 등 장비를 동원해 침수된 도로와 상가 등에서 쓰레기, 갯벌을 제거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법성항 상가 밀집지역은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는 사리 때 폭풍, 태풍 등에 의한 크고 작은 해수범람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항구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재해위험지구로(2007. 5. 25.) 지정하여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도에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예방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내용으로는 파도 및 풍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월류 방지벽 1.28㎞, 도로 및 배수시설 0.61㎞를 시설하였고, 이상 조위 상승으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을 위해 안마도 등에 해일 감지 시설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반성 및 교훈

너울성 파도는 먼 지역에서 발생한 장주기파 파도가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특정지역에서의 천수효과, 지형적 효과, 기상현상에 의해 증폭되어 나타난 것으로, 먼바다에 있는 선박과 인구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너울성 파도의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으로는 첫째, 신속한 상황관리 및 정보전달을 위한 실시간 상황전파 시스템 운영, 둘째, 그동안 피해지역은 피해사례 및 사전대피 등에 대한 홍보강화, 셋째,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으로 상시적 예방교육과 함께 항구적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14.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수습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014년 1월 31일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 제2부두에 원유 운반선(WU YI SAN호)이 잔교와 충돌하여 송유관이 파손돼 오염 물질(원유 559.9㎘, 나프타 334.3㎘, 유성혼합물 32~131㎘)이 최대 1,025㎘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 경남 남해·하동군 해역이 오염되었으며, 전남도 연안 해역 유류오염 구간은 여수 신덕 ~ 만성 ~ 모사금 ~ 돌산 우두, 광양 묘도 등이었다.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방제활동을 위해 동원된 총인력은 40,593명이며, 선박은 2,157척으로 방제결과 폐흡착포는 906톤, 폐유(해수 포함)는 852㎘를 수거·처리하였다.

해양방제를 위해 해양경찰 방제선과, 도 관공선, 어선 등이 총력 지원하였으며, 오염된 해안가 방제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어업인, 방제업체 등이 참여하여 방제를 완료(방제활동 종료일 : (신덕) 4. 3, (만성·돌산) 3. 3, (묘도) 2. 24)하였다.

전남도는 사고초기부터 방제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방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사고초기에는 사고 매뉴얼 정비와 오일펜스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에 따라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도에서는 유류사고 발생에 따라 유류사고 관련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관공선 4척(정화선1, 지도선 3)을 우선 해상방제에 투입하였다. 또한 "해안가 방제활동 인력지원 계획수립" 계획과 지원차량을 투입하여 해안방제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해안방제 활동 중 접근하기 힘든 암벽 지역에는 해경 특공대를 투입(72명)하여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사고초기 유류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시·군(순천, 고흥, 보성)의 공무원을 동원, 해안가 방제인력(250명)을 지원하였다.

방제가 미진한 해안방제에 있어서는 방제업체를 동원하여 자갈세척기와 대형 솥을 이용하여 자갈에 고착된 기름 세척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장비(포크레인)를 투입하여 해변 모래사장의 모래를 뒤집어서 아래층에 침윤되어 있는 기름 찌꺼기를 위로 올린 후 파도에 의해 기름이 씻기도록 하고, 표층에 노출되면 흡착포로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방파제 석축 사이에 흡착된 기름찌꺼기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저층에 노출되면 흡착포로 제거하였다.

2014년 4월 4일 어업인 방제작업은 완료되었으나, 방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 방제업체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센터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이-마트에서 여수지역 해산물인 "알굴" 판매행사를 7일간(2.20.~26.) 개최하여 15톤을 판매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인접한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여수 수산물 특별전을 5일간(2.21.~ 25.) 개최하여 직거래를 통한 시중가 대비 30%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2014년 2월 26일 국민건강캠페인 발대식에서 여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추진하였다.

피해 배·보상을 위해 2014년 2월 3일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35명)하여 유류피해 관련 어업인 대책 등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결과 방제비용 지급을 GS측에서 46억원(여수 23, 광양 2, 남해 19, 하동 2)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 배·보상을 위해 6개월 이내 피해조사·감정평가 후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배·보상 방식은 지역 피해대책위원회별로 GS측과 개별 합의키로 결론을 내리고 현재 최종 합의안에 따라 피해조사·감정 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사고 현장 및 방제작업 광경

유류사고 현장 및 해안방제

신덕마을 유류회수 및 흡착포 활용 방제

15. 자연재해 피해 항구적 복구대책 마련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과거와 달리 빈번한 태풍, 집중호우, 강풍, 해일 등으로 대형재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및 하천 하류의 홍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해수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대기 중 수증기 증가는 집중호우 및 태풍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태풍이름	피 해 액	복 구 액
2003	매 미 (9.12.–9.13.)	• 인명 : 119명(전남 11) • 재산 : 42,225억원(전남 2,741억원)	총 63,922억원 (전남 3,606억원)
2004	민들레 (7.2.–7.17.)	• 인명 : 2명(전남 0) • 재산 : 893억원(전남 34억원)	총 1,597억원 (전남 58억원)
	매 기 (8.17.–8.19.)	• 인명 : 0명(전남 0) • 재산 : 2,509억원(전남 1,209억원)	총 4,565억원 (전남 2,174억원)
2005	나 비 (9.6.–9.18.)	• 인명 : 6명(전남 0) • 재산 : 1,385억원(전남 0.04억원)	총 2,595억원 (전남 3억원)
2006	산 산 (9.16.–9.18.)	• 인명 : 6명(전남 0) • 재산 : 109억원(전남 0.2억원)	총 152억원 (전남 0.2억원)
2007	나 리 (9.13.–9.18.)	• 인명 : 16명(전남 3) • 재산 : 1,592억원(전남 620억원)	총 3,636억원 (전남 1,560억원)
2010	덴 무 (8.9.–8.12.)	• 인명 : 1명(전남 0) • 재산 : 34억원(전남 11억원)	총 72억원 (전남 18억원)
	곤파스 (9.1.–9.3.)	• 인명 : 6명(전남 0) • 재산 : 1,674억원(전남 70억원)	총 1,793억원 (전남 143억원)
	말 로 (9.5.–9.7.)	• 인명 : 6명(전남 0) • 재산 : 16억원(전남 0.2억원)	총 4억원 (전남 0.06억원)
2011	무이파 (8.6.–8.10.)	• 인명 : 1명(전남 0) • 재산 : 2,183억원(전남 851억원)	총 4,617억원 (전남 1,654억원)
2012	카 눈 (7.17.–7.19.)	• 인명 : 0명(전남 0) • 재산 : 15억원(전남 4억원)	총 35억원 (전남 8억원)
	볼라벤, 덴 빈 (8.25.–8.30.)	• 인명 : 15명(전남 4) • 재산 : 6,365억원(전남 3,713억원)	총 10,113억원 (전남 6,217억원)
	산 바 (9.14.–9.17.)	• 인명 : 0명(전남 0) • 재산 : 3,657(전남 322억원)	총 8,415억원 (전남 559억원)

전남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태풍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구적 복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2년부터 건설, 농·수산 분야 피해전반에 대한 항구복구 실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현장중심 대책으로 도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항구적 복구 T/F팀 구성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최대 피해를 가져다주었던 태풍 볼라벤과 덴빈(2012년) 등 연이은 태풍 피해를 계기로 재난 피해복구를 항구복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태풍피해 특별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TF팀은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예산 및 연구분야, 방재복구분야, 행정지원분야, 농업식품분야, 해양수산분야로 이루어졌고, 팀원으로 건설방재국, 농림식품국, 해양수산국, 행정지원국,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원, 전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태풍 북상에 따른 항구복구대책 보고회

분야별 항구적 복구대책

지난 2012년 분야별로 현실적인 항구적 복구 실행방안 14건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개선사항 7건, 분야별 건의사항 22건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구복구대책으로 농림분야는 축산시설 현대화, 과수 고품질을 위한 방풍림 조성, 다목적 사방댐 조성 확대, 해안지역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재배 및 우량품종 보급, 쓰러짐에 강한 '호품 벼' 재배 확대, 시설원예(하우스) 시설보강 및 설계기준 상향조정,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 철재 및 해가림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는 방파제 등 항만·어항 시설에 대한 태풍 설계기준 강화, 가두리 내파성 시설기준 강화·보급, 선박 안전대피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확대, 복합다기능 부잔교 안전성 개선, 도서낙도 국제위성 통신용전화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옥분야는 용마루·내림마루를 기와 동선으로 묶도록 의무화하고, 한옥 신축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방풍림조성 5개년 계획 수립, 다목적 사방댐 확대조성 5개년 계획 수립, 어항 및 항만시설 설계기준 강화(어항 10년→50년, 항만 50년→100년), 전라남도 한옥 건축기준을 강화, 기타 축산시설 현대화,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재배 및 우량품종 보급, 가두리 내파성 시설기준 강화·보급, 선박 안전대피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방재 효율화 추진

이처럼 전라남도는 재난재해에 대해 일시적인 복구 및 피해보상 중심의 사후처리식 관리체계를 벗어나, 2012년부터 추진한 "태풍피해 항구복구 대책"과 같은 근본적인 재해 예방 및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 4월 개최된 방재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설, 농·수산 등 분야별 실행계획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단계별 방재 우수사례로서 타 지자체에 전달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및 효율적인 복구지원을 도모하고 방재정책·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